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투쟁이다”

현중 주총 무효, 대조 매각 철회 전국노동자대회 ... “부당징계 떨치고, 사내하청 노동자와 함께 투쟁”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중단, 대우조선 인수 중단,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며 울산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6월 26일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울산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 산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울산에 내린 큰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우를 맞으며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다. 나 역시 투쟁 과정에서 구속당한다 해도 감수하고 싸우겠다”라며 “노동운동 탄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비정규직 확대이다. 노동자를 공격하는 적폐를 막아내야 투쟁이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 현중의 불법 주주총회로 노동자들은 정몽준의 실체를 알았다”라며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투쟁이다. 우리는 단결이 가장 필요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 조합원과



사내하청조합원은 이미 하나다. 흠어지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로 구속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운동 탄압을 지켜보지 않겠다”라며 “금속노조가 7월 3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엄호하고, 7월 18일 총파업 투쟁에 최선을 다해 결합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7월 5일 거제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결의하는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에 대우조선 정몽준 재벌 특혜 매각 중단과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이를 조종하는 재벌들이 조선산업과 울산시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가 이 난장판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자가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전국의 노동자가 끝까지 함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현대중공업 분할 저지 투쟁은 대우조선을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투쟁이며, 울산을 살리는 투쟁이다”라고 호소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현중 하청노동자가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하청노동자는 20% 임금삭감, 3만 명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한마디 못했다. 하청노동자를 품지 못하면 정규직도 함께 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경찰이 현중지부 간부들을 압수수색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사측은 징계에 나섰다”라며 “현중지부는 당당하게 싸우겠다. 부당한 징계에 응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현중 자본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자본은 이미 조합원 세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부는 사측이 단협을 무시한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현대중공업 일산문까지 30여 분 동안 행진을 전개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행진하는 조합원들을 향해 손뼉을 치거나 손을 흔들어 주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했다.

“일진다이아몬드 주인은 노동자다”

대전충북지부·지회, “무기한 총파업 선언” ... “금속노조 파업으로 일진 현장관리체계 망가뜨린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저임금, 노예노동과 노조파괴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모든 지원 대책을 세우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약속했다.



계 연대할 테니,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단결해서 투쟁하라”라고 응원했다.

현장 발언에서 김장근 지회 조합원은 단순한 업무 실수까지 징계하는 일진 자본을 규탄하며 “빼앗긴 임금과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회는 6월 26일 충북 음성군 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회와 사측은 지난 6달 동안 스물한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은 일부러 교섭을 늘여트렸다. 지회는 단체협약 요구 149개 조항 중 불과 아홉 개 조항만 의견접근을 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교섭 지연으로 교섭 중지’를 결정했다.

일진 자본은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범위를 명시하자며 노조파괴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홍재준 노조 일진다이아몬드 지회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오늘 무겁지만, 결의를 높여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다. 누가 일진다이아몬드의 주인인지 끈질긴 투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금속노조와 대전충북지부 전체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오늘 파업투쟁은 일진 조합원의 투쟁을 넘어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확대됐다. 노조의 파업으로 일진 자본이 움켜쥔 현장관리체계를 빠르게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민제 노조 한온시스템대전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의 파업이 계속 될수록 노예 상태에서 멀어질 것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매일매일 승리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현장에서 본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지역의 연대와 지원을 결의했다.

조종현 총연맹 충북본부장과 운영위원들은 연대사에서 “동지를 믿고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충북의 동지들이 촘촘하고 강력하

매출 대비 평균 11%의 영업이익을 내는 일진다이아몬드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상여금 600% 가운데 400%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임금은 이미 2014년부터 동결했다. 노동자들은 보호장구도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했다. 일진 자본은 오로지 생산만 강요했다.

참다못한 일진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금속노조 지회를 세웠다. 교섭에 나온 일진 자본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에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협정근로자 범위를 정하라고 요구했다.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범위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전체 조합원 250명 가운데 180명에 해당한다. 사측은 여름휴가 개인 연차 사용과 교섭과 노사협의회, 대의원대회 연 1회만 인정하겠다는 제시안을 고수하고 있다.